

## ‘관광 전남’의 추락

정부 선정 ‘한국관광 100선’ 반토막 ... 2013년 15곳 → 2019년 7곳  
섬 관광 육성하고도 거문도·홍도 등 탈락 ... 신규 진입 미항사 1곳 뿐

전남의 관광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서 전남 관광지는 8년새 반토막났다. 특히 전남도가 섬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섬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특히, 정부가 선정하는 데다, 방식이 엄격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은 ▲기존 ‘한국관광 100선’ 평가 ▲광역지자체 추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비후보 2배수를 발굴한다. 이들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정성·정량),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성평가는 학계·여행업계·여행기자 및 작가·여행 동호회(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전

문가 13인이 참여해 진행한다. 정량평가는 이동통신사 이동객수·증가율,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증가율, SNS 데이터 언급량·증가율 등 자료를 활용해 평가한다.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은 권역별로 수도권 26곳, 강원권 13곳, 충청권 10곳, 전라권 14곳, 경상권 28곳, 제주권 9곳이다. 전라권에서는 광주 2곳(무등산·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남 7곳(순천만습지·여수 엑스포해양공원·담양 죽녹원·곡성 섬진강 기차마을·강진 가우도·보성 녹차밭·해남 미항사), 전북 5곳(전주한옥마을·군산시간여행·내장산·마이산·무주태권도원)이다.

순천만과 보성 녹차밭은 4회 모두 선정됐고, 담양 죽녹원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3회 연속, 강진가우도와 여수 엑스포해양공원은 2회 연속 뽑혔다. 해남 미항사는 이번에 처음 진입했다. 하지만 한국관광 100선 전남 관광지는 처음 선정했던 2013-2014년 15곳에서 2015-2016년과 2017-2018년 각각 9곳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7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전남도는 신안 톨림 등 13곳을 추천했지만, 그 절반 수준인 7곳만이 선정됐다.

문제는 탈락한 관광지 대부분이 전남도

가 주력하고 있는 섬 관광지라는 점이다. 여수 거문도·고흥 나로도·완도 보길도 세연정·완도 청산도·진도 운림산방·신안 홍도·신안 증도 등 섬이 7곳이나 된다. 여수 오동도와 신안 증도·홍도, 완도 청산도는 총 4차례 중 2차례 선정됐다가 이번에 탈락했다. 광양 섬진강 매화, 담양 소쇄원, 화순 고인돌, 강진 다산초당, 무안 회산백린지도 떨어졌다.

반면 서울은 4곳에서 10곳으로, 경기도는 9곳에서 12곳으로, 부산은 2곳에서 6곳으로, 대구는 1곳에서 4곳으로, 제주는 4곳에서 9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관광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콘텐츠 개발도 부족해서로 분석된다. 뛰어난 자연경관 위주였던 기존의 관광 트렌드가 최근 들어 자연경관에 인공놀이를 가미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한국관광 100선에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관광지를 기존 100선에 중복되지 않게 추천해야 한다. 또 일반인들의 SNS 검색량 또는 통신사 이동량,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 빈도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협약

광주시·금호타이어 “노동 존중 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 협력”

광주시와 금호타이어는 1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미래셋대우와 ‘광주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및 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전대진 금호타이어 부사장, 조삼수 전극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노사 임직원 그리고 봉원석 미래셋대우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금호타이어가 추진 중인 광주공장의 이전 및 현 광주공장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행정적 협의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와 미래셋대우는 송정역 인근 광주공장용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사회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발계획을 검토한다. 현 공장용지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정하면 구체적인 이전 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금호타이어는 현 공장용지 개발로 얻는 수익은 모두 신공장에 투

자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광주시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해 경영정상화, 지속발전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지속발전 전담팀(TF)을 꾸려 금호타이어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한편, 이날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 간의 업무협약에 이어서 금호타이어와 미래셋대우 간 광주공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식도 개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강진 초등생 연쇄살종 용의자 찾았다 ▶6면  
그림편지 - 밀라노에서 정광희 ▶18면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16일 오전 광주지역 43개 시민단체가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진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3명의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한국당 5·18 왜곡 인사 추천 철회하라” 5월 단체·정치권·지역사회 거센 반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 3명에 대해 5·18을 왜곡하거나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라며 5월 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계,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당이 추천한 이동욱(59) 전 월간조선 기자는 지난 1996년 잡지 ‘월간조선’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5·18 당시 계엄군의 화염방사기 사용, 성폭행 등은 모두 오보라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한 방송에서는 ‘소수의 선봉기와 다수의 선량한 시민, 이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왜곡했다.

차기환(56)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한 보수단체의 토론회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와 서적 ‘어둠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는 5·18 진상을 왜곡·과장해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인식시켰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 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또 자신의 SNS ‘트위터’에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경악! 북한군 광주 5·18납과 사실로 밝혀져’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해 유족

들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전력도 있다.

권태오(63)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5·18 관련 활동이 없어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계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국당의 위원 추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3개 광주지역 시민·사회·노동·오월단체와 정당은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추천된 3인은 5·18 진실을 왜곡과 유언비어로 폄하할 소지가 다분하고 진상규명 조사를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우리는 결코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당은 3인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거나 차라리 추천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성명을 내고 “광주시민은 자유한국당 추천인사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로 조속히 재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번 한국당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은 5·18광주정신에 대

한 도전이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을 추천을 철회하고 광주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한 5·18연구자는 “한국당이 4개월간 시간을 끈 뒤 논란거리가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을 보면, 조사위 활동(최대 3년)이 끝난 후 작성되는 보고서 발표 시점을 오는 2022년 대선 시기에 맞추려서 5·18 이슈를 묻어버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향후 진상조사위 구성 및 활동과 관련, 5·18 단체 등 광주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주시민들이 한국당 추천 인사들은 자격이 안 되지만 소수니까 조사위 활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부족하다고 출범시키겠다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조사위원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다음 국회에서 조사위를 다시 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다른 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며 “괜히 시작해서 성과를 못내는 것보다 (연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국회위원장 1명(상임위원), 여야당이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하며 최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남구 남부대로 603(동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남구 임원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sub>2</sub>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